"무주덕유산리조트 상생 방안 찾아야"

문은영 무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지역관광 활성화 · 안전사고 예방 위해 소통 촉구

문은영 무주군의회 행정복지위원장(사진)이 올해 무주덕유산리조트 일대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사고로 대외 평판도가 크게 하락했다며 무주군이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무주덕유산리조트와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문은영 위원장은 지난 12일 열린 제314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무주관광과 지역경제를 위해 무주덕유산리조트와 소통을 시작하자!」 5분 발언을 통해 "덕유산의 상징인 상제루가 화재로 전소되고 곤돌라 멈춤사고는 반복되었으며 설 연휴기간에는 폭설로 리조트 앞 삼거리부터 리조트까지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문은영 위원장은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관광객들이 곤도라에 대한 우려를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폭설로 차 안에서 오도가도 못하는 관광객들은 발만 동동 굴렸고 상점가는 모처럼 기대한 설 연휴 특수를 날렸다. 이는 폭설경보가 발효됐음에도 덕유산리조트가 민간기업이라며 방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문은영 위원장은 "곤도라 멈춤사고나 폭설 대응 문제는 무주덕유산리조트의 책임이 맞다. 하지만 민간기업을 점검하고 지도해 관광객들이 무주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주군의 역할이므로 민간기업에만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은영 위원장은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 무주군 관광객 감소로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관광객이 무주를 안심하고 방문하도록 △궤도운송법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실시 △지속적인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TF구성과 적극적인 대응전략 수립 △무주군과 무주덕유산리조트가 상생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어 "곤돌라 멈춤사고는 올해만 발생한 것이 아니며 작고 크게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곤돌라 교체를 비롯해 무주덕유산리조트의 원활한 운영과 관광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찾고 군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대안을 내야 한다"고 촉구하고 5분 발언을 마쳤다. /무주=전문선 기자

"혹한기 겪는 농민에게 훈기 주는 농업예산 편성하라"

무주군의회, 농업분야 추가경정예산 조속 편성 촉구 건의안 채택

무주군의회(의장 오광석)가 생산비용 급등과 쌀값 하락, 대외 신인도 불안에 노출된 대한민국의 농업을 살려야 한다며 정부가 농업 예산을 증액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무주군의회는 12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윤선 산업건설위원장이 발의한 「농업 분야 추가경정예산 조속 편성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최윤선 위원장은 건의안을 발의하며 "필수 경영자원의 가격급등과 국내 산지 쌀값 하락으로 농민들의 심리적 어려움은 겨울철 혹한에 비견된다. 대한민국 농업은 국제 시장의 불안정성과 에너지 비용상승으로 글로벌 리스크에 노출됐고 식량안보, 생산성,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각한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윤선 위원장은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농업인 소득 · 경영 안전망 강화, 지방소멸 대응, 농 · 축산물 수급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를 농정과제로 제시하고 있고 농민들 또한 이를 강조하고 있으나 정작 확정된 예산에는 관련 사업비가 빠져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주군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통해 농업을 정치적 이익추구 수단으로 삼거나 예산 부족사태를 방치해 농민에게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며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조속 편성 △추가경정예산에 농민의 의견을 반영한 농업분야 예산 증액 편성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농촌주택개량사업 접수

장수군은 농촌 주거환경개선과 농촌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21일까지 '2025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노후하거나 불량한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개량할 수 있도록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자는 본인 소유의 노후 · 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자와 무주택자 등이며 대출 기관인 농협의 내부 지침에 따라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축 · 개축 · 재축일 경우 2.5억원, 증축 · 대수선의 경우 1.5억원 한도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14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행 시행

진안군은 오는 14일부터 관내 11개 읍 ·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본격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행을 시행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춰 온 · 오프라인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지갑 없이도 간편하게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관내 군민이라면 군 11개 읍 · 면 행정복지센터 어디에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행이 가능하며 3월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방문 신청이 가능해진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설치해야 하며, 발급 방식은 IC 주민등록증을 활용하는 방법과 QR코드를 이용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IC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 시 서식에서 'IC(집적회로)칩 내장'을 선택해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는 실물 주민등록증이다.

QR코드 발급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용 QR 코드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의료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진안군의회, 업무수행 능력 · 자질 · 도덕성 등 검증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옥)는 12일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에서 조백환 진안군의료원장 임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가 진안군의료원장으로서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을 갖췄는지 다각적인 관점에서 심도 있게 검증했다.

특히 △학력 · 경력 등 이력 및 업무수행 능력,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진안군의료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 △진안군의료원 조직 및 인력 운영 방안, △진안군의료원 재정 건전성 및 해결 방안, △생태 건강 치유도 시 및 치유관광 등 진안군의료원의 역할, △진안군의료원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위원장 이미옥)은 "진안군 공공의료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자리인 만큼 임용 후보자가 의료원장으로서 역량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철저하게 검증에 임했다"며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군민의 건강증진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적임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는 18일 조백환 임용 후보자에 대한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진안군수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진안군의료원장 임용 후보자로 요청된 조백환 후보자는 1951년 생으로 전남대학교에서 외과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전북대병원 겸직 교원과 압센터 초대 소장, 이식센터 초대 소장 등을 거쳐 현재는 제4대 의료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한편 진안군의회는 진안군으로부터 진안군의료원장 임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됨에 따라 동창옥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선정해 지난 1월 24일 이미옥 위원을 위원장으로, 손동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하였고, 진안군의료원장 인사 청문 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 실시계획안을 채택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임신 · 출산 · 양육 지원 주력

무주군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취지에서 올해 임신 · 출산 · 양육 지원에 주력한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역 내에 주소를 둔 20~49세 남녀 주민의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도 지원(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여성 최대 13만 원, 남성 최대 5만 원)한다.

임산부 등록을 하면 엽산제(3개월)와 철분제(5개월) 등 영양제를 지원한다. 또 유아용 식판과 이유식 보냉가방, 신생아 용품(손톱깎이, 속싸개, 배냇저고리 등), 젖병, 빨대컵, 임산부 차량 표지판 및 가방배지, 모자보건수첩 등을 지원한다.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에게는 임신 축하금 50만 원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의 현실을 고려해 산전 검사 및 분만을 위한 임산부 이송 지원 서비스(교통비 최대 70만 원)도 제공한다.

도내 지정 의료기관(산부인과, 한방과)과 산후조리원에서 산후 치료를 받았을 때에도 1인당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이외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가사 지원을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도 제공(5일~최장 40일, 휴게시간 포함 1일 9시간) 하는데 본인부담금의 90%를 무주군에서 지원한다.

출산 장려금도 첫째아 4백만 원~넷째아 1천5백만 원까지 지급한다. 무주군에 출생 신고된 영유아에게는 첫만남이용권도 지급(첫째아 2백만 원, 둘째아 이상 3백만 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한다.

출생 아동 명의의 축하 통장(축하금 20만 원 입금)도 개설해 지원하며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육아용품 구입비 25만 원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기저귀 월 9만 원, 조제분유 월 11만 원 최대 24개월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원), 미숙아 및 선천적 이상아 의료비 지원(미숙아 체중별 3백만 원~1천만 원, 선천성 이상아 1인당 5백만 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 등을 진행한다.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 입원 치료를 받거나 사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들에게는 입원 치료에 대한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 등 의료비도 지원(해당 금액의 90%, 1인당 최대 3백만 원)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고원 촌스런 마을여행 사업설명회 개최

진안군과 진안군마을만들기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11일 진안읍 외사양농촌체험휴양마을(마이산 에코타운)에서 '2025년도 진안고원 촌스런 마을여행 활성화 사업'에 참여 예정인 10여개마을 위원장과 사무장, 실무자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진안고원 촌스런 마을여행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업설명회는 진안군청 농촌활력과 담당 주무관이 진안고원 촌스런 마을여행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과 농촌활동가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을 하고,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진안고원 촌스런 마을여행 프로그램은 진안군의 특화된 마을만들기 정책과 연계한 자체 농촌관광 프로그램이다. 지역의 우수한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연결해 마을만들기 사례강의와 체험프로그램, 마을탐방, 마을식사, 마을숙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마을공동소득 창출과 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장수군은 농업분야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농협의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2012년 이전(2012.12.31.일까지) 생산된 트랙터와 콤바인이며 조기폐차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인이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고, 농기계가 정상 작동되어야 한다.

만약 미등록된 농기계의 경우에는 과거 면세유를 받는 이력이 있고 해당 농기계의 규격 등을 확인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기종별 규격(마력)과 제조연도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신청량이 많을 경우에는 연식이 오래된 순, 보조금이 적은 순으로 선정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자로 확정되면 농업기계 폐차업소에서 정상 가동 확인, 폐차입고, 폐차 확인 등 과정을 거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게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옥),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